

#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백명화<sup>1</sup>, 안성아<sup>2</sup>, 이해랑<sup>3</sup>, 박찬경<sup>4</sup>, 공정현<sup>5\*</sup>  
<sup>1,2,3,4,5</sup>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 A Study on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Myung-Wha Baek<sup>1</sup>, Seong-Ah Ahn<sup>2</sup>, Hae-Rang Lee<sup>3</sup>, Chan-Gyeong Park<sup>4</sup>, Jeong-Hyeon Kong<sup>5\*</sup>  
<sup>1,2,3,4,5</sup>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경남지역 소재의 2개 간호대학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 199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동년 8월 29일까지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 test, ANOVA, scheffe's test와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4.87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84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2.77점이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전공만족도, 자존중감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14.1%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공만족도를 향상을 위한 선후배 멘토링 제도, 동아리 활성화 및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ubjective happiness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and how these variables affect clinical practice stress. Participants consisted of 199 nursing students who were in the third and fourth years who ha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t two nursing universities located in Gyeongnam, and agreed to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June 15 to August 29, 2020.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2.0 statistics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score for subjective happiness was 4.87 (out of 7), the mean for self-esteem was 3.84 (out of 5),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2.77 (out of 5).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were gender, major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variance was 14.1%. Therefore, we need differentiated clinical practice stress reduction programs according to gender and various strategies that can enhance major satisfaction in order to reduce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Self Esteem, Stress, Subjective Happiness

## 1. 서론

### 1.1 서론

간호대학생은 엄격한 교과과정으로 인하여 과중한 학습량과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및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과 취업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 간호대학생은 특히, 1,000시간 이상의 임상이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노출로 인해 불안과 긴장

을 느끼며 나아가 학과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2-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동안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미래의 예비 간호사로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의문을 품게 된다[5].

\*Corresponding Author : Jeong-Hyeon Kong(Jinju Health College)

Tel: \*\*\* - \*\*\*\* - \*\*\*\* Email: wjdgus0063@hanmail.net

Received October 14, 2020

Revised November 17, 2017

Accepted December 14, 2020

여러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심리적 장애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주관적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6-7]. 특히, 주관적 행복감이란 정서적 측면의 주관적 안녕감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를 말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10].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살, 우울 등의 증상이 적으며,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정서인 주관적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변인이다[12].

자아존중감은 행복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또 다른 내적 변인이다[13]. 자아존중감은 본인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 어떤 일이든 주도적 역할을 한다[14].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활력 있는 삶과 주관적 행복감도 높다[13, 15].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응력이 높았다[13].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의 중요한 내적 변인으로[16],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같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으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17],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18], 임상실습 만족도[19], 의사소통능력, 스트레스 대처[20] 등이 있었으며,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심리, 사회, 정신적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21].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심리, 사회,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 주관적 행복감과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의 병행, 국가고시 준비 등의 상당히 많은 학업량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6]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부터 논문을 작성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다.
- 셋째,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C시와 J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학생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설문문과 동의서에는 수집된 자료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문작성 중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연구참여 도중 중단하더라도 일체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

을 활용 하였으며 효과크기는 .15이며 유의수준( $\alpha$ )은 .05, 검정력( $1-\beta$ )은 .95, 예측변수는 5개로 했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38명이 산출되어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203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4부는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이를 제외하고 최종 19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주관적 행복감

Lyubomirsky와 Lepper[22]가 개발한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Kim[2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이다. 최저 1점, 최고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70이었다.

### 2.3.2 자아존중감

Rosenberg[24]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Jeon[25]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이다.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87이었다.

### 2.3.3 임상실습 스트레스

Beck과 Sravastava[26]가 개발하고 Kim과 Lee[2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실습교육 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총 24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 Lee[27]의 연구에서 연구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연구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9이었다.

##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팀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78명(88.4%), 나이는 25세 이하가 170명(85.4%)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4학년이 100명(50.3%)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158명(79.4%)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응답한 경우가 105명(52.8%), 대인관계는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134명(67.3%),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30명(65.3%), 성적은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3명(71.9%)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표 1] 일반적 특성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3(11.6)
	Female	178(88.4)
Age	Under 25	170(88.4)
	Over 26	29(14.6)
Grade	3rd	99(49.7)
	4rd	100(50.3)
Religion	Yes	41(20.6)
	No	158(79.4)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05(52.8)
	Moderate	89(44.7)
	Unsatisfied	5(2.5)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34(67.3)
	Moderate	65(32.7)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30(65.3)
	Moderate	62(31.2)
	Bad	7(3.5)
Academic achievement	High	26(13.1)
	Middle	143(71.9)
	Low	30(15.1)

### 3.2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주관적 행복감은 7점 만점에 평균 평점 4.87점,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84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2.77점이었다.

[Table 2]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level (N=199)

[표 2]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Variable	Range	Min	Max	M±SD
Subjective happiness	1-7	2.75	7.00	4.87±0.85
Self esteem	1-4	2.20	5.00	3.84±0.56
Clinical practice stress	1-4	1.17	3.83	2.77±0.53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 ( $t=-2.68, p=.008$ ), 전공만족도( $F=6.28, p=.002$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가 '만족'인 경우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Clinical practice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inical practice stress	
		M±SD	t or F (p)
Gender*	Male	2.49±0.66	-2.68 (.008)
	Female	2.80±0.50	
Grade	3rd	2.82±0.49	1.46 (.146)
	4rd	2.71±0.57	
Religion	Yes	2.74±0.55	-0.32 (.751)
	No	2.77±0.53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2.67±0.57 <sup>a</sup>	6.28 (.002)
	Moderate	2.85±0.46 <sup>b</sup>	
	Unsatisfied	3.35±0.30 <sup>c</sup>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2.76±0.53	-0.47 (.637)
	Moderate	2.79±0.53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2.74±0.49	0.94 (.391)
	Moderate	2.80±0.61	
	Bad	3.00±0.37	
Academic achievement	High	2.79±0.43	0.17 (.843)
	Middle	2.77±0.53	
	Low	2.71±0.61	

\* Mann-whitney U

### 3.4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 $r=-.26, p<.001$ ), 자아존중감( $r=-.27, p<.001$ )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주관적 행복감은 자아존중감( $r=.72, p<.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appiness, self 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표 4]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Variable	Subjective happiness	Self esteem	Clinical practice stress
	r(p)	r(p)	r(p)
Subjective happiness	1		
Self esteem	.72 (<.001)	1	
Clinical practice stress	-.26 (<.001)	-.27 (<.001)	1

### 3.5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본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결과 성별, 전공만족도를 사용하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을 사용하여 총 4개를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별, 전공만족도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0.481~0.992로 모두 0.1 이상, VIF는 1.008~2.007로 모두 10 이하로 낮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잔차분석 결과 오차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빈-왓슨은 1.836으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성별( $\beta=.14$ ), 전공만족도( $\beta=.18$ ), 자아존중감( $\beta=-.17$ )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14.1%이었다.

[Table 5] Predictor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표 5]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2.85	.300		9.53	<.001
Major satisfaction	.17	.047	.18	3.66	<.001
Gender	.30	.104	.14	2.85	.005
Self esteem	-.13	.090	-.17	-2.53	.012
Subjective happiness	-.07	.060	-.11	-1.39	.165

Durbin-watson 1.836,  $F=7.954$ ,  $p<.001$ ,  $Adj.R^2=.141$

#### 4. 논의

본 연구는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7점 만점에 평균 4.8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Jo와 Park[28]의 연구에서 3.72점보다 높았으며, Kim과 Jeon[29]의 연구에서 5.08점보다 낮았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28].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3.84점이었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o와 Park[2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3.72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Choi와 Ha[3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3.66점보다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므로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1-32]. 대학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우울과 불안을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 대인관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안정된 자아존중감을 가진 간호만이 환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34]. 그러므로 대학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은 1차 학생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지도교수를 위한 슈퍼비전 전문가, 교육 및 코칭 상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수자를 위한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77점으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35]의 연구 결과 3.02점보다 작았으며, Lee와 Kim[36]의 연구에서 2학년 2.71점, 3학년 2.67점과 비슷하였다. 임상실습은 강의실에서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임상현장에서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직접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필수적인 학습과정이라 매우 중요하다[37].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실습 위주의 반복된 생활과 친구 관계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실습에 열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긴장 등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38].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과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은 여자가 남자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Shin과 Jung[20]의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Shin과 Park[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므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별과 전공만족도 집단 간 대상자 수의 차이가 있어 연구 결과 해석의 제한

점이 있다. 따라서 집단 간 수의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높아지며,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여러 선행연구결과 [39-40]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전공만족도였다. 이는 Hwang[18], Lee 등 [41]의 연구에서 성별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42-43]. 그러므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후배 멘토링 활성화, 전공 동아리 활성화 등 대학 내 지원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4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학년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2개의 간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기 때문에 향후 임상실습 경험별, 무작위 표본 추출을 이용하여 반복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로 편의 추출하여 연구결과 해석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주관적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과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제안하고,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M-H. Jung and M-A. S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170-177, 2006.
- [2] M. Clement, L. Jankowski, L. Bouchard, M. Perreault and Y. Lepage, 'Health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1, No.6, pp.257-265, 2002.
- [3] N-Y. Yang and S-Y. Moon,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9, No.1, pp.33-41, 2013.
- [4] Y-J. Son, E-Y. Choi and Y-A.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Research',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18, No.4, pp.345-351, 2010.
- [5] G-H. Jo, 'Percep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 Happiness: A Q-Methodological Approach',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2, pp.178-189, 2011.
- [6] J-G. Kim and H-S. Park,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1, pp.545-559, 2015.
- [7] G-Y. Jo and H-S. Park,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 Cooperation Society*, Vol.2, No.1, pp.160-169, 2011.
- [8] E-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University Life Adjustment and Employment Strategy of University Students', *Mastrer's Thesis, Gyeongsng National University*, 2009.
- [9] W. Campton,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Thomson/Wads Worth, 2005.
- [10] G-Y. Jo, 'The Effects of Becoming Happy I' Program on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Flow, and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Doctoral Thesis, Catholic*, 2011.
- [11] B. Fredrickson,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Vol.359, pp.1367-1377, 2004.
- [12] D. Danner, D. Snowdon and W. Fresen, 'Positive Emotions in Early Life and Lonevity: Finding from the Nu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0, pp.804-813, 2001.
- [13] G-Y. Jo and H-S. Park,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 No.1, pp.160-169, 2011.
- [14] S-J. Lee and J-H. Yu, 'The Medit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22, No.3, pp.589-607, 2008.
- [15] S-H. Lee, B-Y. Chung and S-H. Kim, 'Influence on Subjectiv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9, No.1, pp.115-126, 2015.
- [16] M-H. Nam and M-R. Lee, 'Factors Influence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0, pp.363-374, 2014.
- [17] E-J. Shin and Y-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11, pp.5636-5645, 2013.
- [18] H-M. Hwang, 'Relationship among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Students',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12, No.1, pp.1-10, 2017.
- [19] H-J. Lee,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7, No.4, pp.75-83, 2016.
- [20] S-J. Shim and M-S.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Stress Coping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7, No.5, pp.441-455, 2016.
- [21] K-H. Jo, 'Percep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 Happiness: A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2, pp.178-189, 2011.
- [22] S. Lybomirsky and H. Leeper,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46, pp.137-155, 1999.
- [23] I-J. Kim, '*Positive Psychology*', Mulpure, 2006.
- [24]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ion, University Press, 1965.
- [25] B-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a Collection of Treatises*, Vol.11, pp.107-130, 1974.
- [26] D. Beck and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127-133, 1991.
- [27] S-L. Kim and J-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96-106, 2005.
- [28] G-Y. Jo and H-S. Park,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5, No.2, pp.123-132, 2016.
- [29] J-H and H-O. Jeon,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J. Korean Aca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25, No.2, pp.123-132, 2016.
- [30] J-R. Choi and Y-M. Ha, 'Relationships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Self-Esteem, Department Satisfaction, Family Strength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6, No.2, pp.307-326, 2020.
- [31] S.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1.
- [32] L-S. Chu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Their Predi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18, No.3, pp.127-166.
- [33] S-O. Kim and Y-J. Jeon,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Focused on Depression and Anxiety',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4, No.4, pp.539-558, 2013.
- [34] H-L. Le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Vol.18, No.2, pp.10-118, 2010.
- [35] B-J. Park, S.J. Park and H-N.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220-227, 2016.
- [36] H-S. Lee and E-J. Kim,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4, No.1, pp.5-13, 2008.
- [37] M-J. Oh, 'A Factor Analysis of the Perspectives on the Coping Strategies about Pract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Vol.6, No.3, pp.423-436, 2000.
- [38] J-W. Park and N-S. Ha,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2, No.1, pp.27-35, 2003
- [39] H-S. Park, 'Stress, Yansaeng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Female Un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the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4, pp.471-481, 2014.
- [40] S-Y. No,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Thinking between Stress and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hysical Growth and Motor Development*, Vol.28, No.1, pp.95-103, 2020.
- [41] A-K. Lee, H-S. You and I-H. Park,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2, pp.154-163, 2015.
- [42] S-H. Lee, S-Y. Kim and J-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2, pp.219-231, 2004.
- [43] H-J. Park and I-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14-23, 2010.